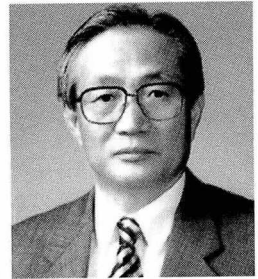


ITS 기획특집

ITS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법

저 자 약 력

-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박 정 태

최근 교통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이제는 러시아워가 따로 없을 만큼 거리에는 자동차들로 꽉 차 있다.

꼬집어 어느곳, 어느때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빗어지고 있는 정체는 대다수의 국민을 아예 체념속으로 몰아넣은지 오래다.

특히 추석, 설 등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과 휴가철의 정체는 무대책이 최상의 대책일 정도로 해결방안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기관과 단체가 산발적으로 각가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동차는 공장에서 매일같이 수천 혹은 수만대씩 만들어져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수용할 도로를 건설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한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들어 선진각국이 의욕적으로 그리고 앞다투어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ITS(지능형교통시스템)는 그래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은 엄청난 자본을 기꺼이 투자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기, 전자, 통신, 제어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자동차에 도로에 접목시켜 교통흐름을 합리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판단해서이다.

이러한 ITS 도입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간 교통망의 근간인 고속도로에도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하고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또한 선진 각국과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기술교류 역시 어느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94년 프랑스 파리와 95년 일본의 요코하마 그리고 96년 미국의 올랜도에서 개최된 ITS세계대회에 우리나라 교통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오는 10월중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될 세계대회에 참가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연구논문 발표와 개발된 신상품을 전시하는 등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내년 10월에는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획을 긋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도로·교통 행정의 내실화와 물류기법의 현실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산업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행사가 일과성의 행사나 그저 말만 풍성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계자는 물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ITS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접 관계되는 에너지절약 등 물류비 절감문제와 교통질서 및 안전, 도로건설 투자비의 절약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물론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등 범정부 차원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산업, 통신, 전자관계 산업등 산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